

저항 시인 '竹兄' 조태일의 문학정신 기린다

'국토의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는...' 5일 곡성서 문학제 열려 40년 지기 박석무 기념재단 이사장, 시인과의 일화 공개 광주대 문창과 제자들 시 낭송·남도소리 전통국악 공연도

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도록 우리는
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.
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
우리는
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
일이다.

조태일의 시 '국토서시' 중에서

70~80년대 암울한 시대 온몸으로 맞서
저항했던 시인 조태일(1941~1999)의 삶
과 문학정신을 기리는 문학제가 열린다.

지난 3월 출범한 (사)죽형조태일시인기
념사업회(이사장 박석무)와 곡성군(군수
유근기), 광주·전남작가회의(회장 조진
태)의 주최로 열리는 '죽형 조태일 문학제'
가 오는 5일 오후 2시 곡성 조태일시문학
기념관에서 개최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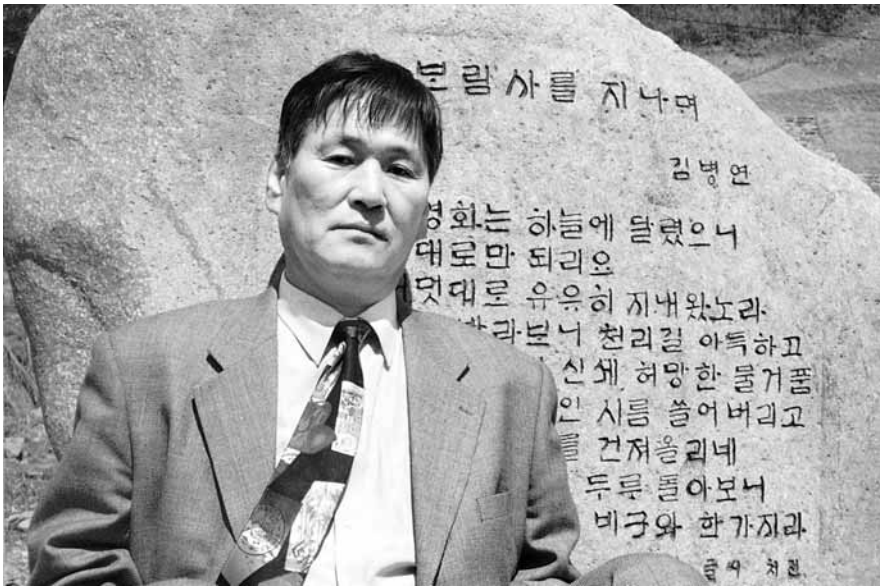
조태일 시인의 16주기(9월7일)를 이틀
앞두고 열리는 이번 문학제는 '국토의 숨
결이 열리도록 우리는' 주제로, 권력의 부
조리에 온몸으로 맞섰던 시인의 삶과 작품
세계를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
다.

이번 행사는 이도운 시인의 추모시 '땅
을 본다' 시낭송을 시작으로 조태일 시인
이 발행한 '시인'지로 등단한 김준태, 고광
현 시인이 조 시인의 인간적 면모, 시인의
시대정신과 문학정신에 대해 들려줄 예정
이다.

또한 조 시인과는 40년 지기였던 박석무
이사장과 후배 시인인 이은봉(광주대) 교
수는 조태일 시인과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
16주기를 맞은 소회를 들려줄 예정이다.
이밖에도 김완, 이승철 시인 등 후배 문인
들을 비롯해 광주대 문창과 출신 제자들
의 시낭송 무대도 마련된다.

이승철 시인은 추모시 '딱 한 잔만 더'를
통해 "아아, 우리들의 죽형 조태일 시인이
여/ 그해 구월, 곡성 죽곡면 원달리 동리
산 언덕을/ 온종일 대숲바람처럼 마구마
구 서걱거리다가/ 저 무진장한 황금빛 노
을을 당신 혼자 가이여/ 죄다 마시기 위하
여 그는 훌쩍 걸 떠나가셨다"며 일찍 세상
을 떠난 선배 시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
할 예정이다.

이밖에도 공연무대가 준비돼 추모 열기를
더할 것으로 기대된다. 인도, 몽고 등 오지
를 탐험하며 토착민 음악을 연구해온 지



곡성 출신 죽형 조태일 시인은 70~80년대 암울한 시대를 온몸으로 맞서 저항했던 문
인이다. 생전의 조태일 모습. <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제공>

유명음악가 신기용은 조 시인의 대표시
를 연주하고, 남도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
내뽕소리민족예술단은 전통국악의 아름
다움을 동리산 계곡에 수놓는다.

조태일 시인은 곡성 태안사에서 대처승
의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광주서중, 광
주고, 경희대를 졸업했다. 1964년 경향신
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
시집 '아침선박' '식칼론' '국토' '자유가
시인더러' '꽃잎은 꺾이지 않는다' '혼자
타오르고 있었네' 등을 펴냈다.

1969년 '시인'지를 창간한 이래 김지하,

양성우, 김준태, 박남준 시인을 발굴하는
등 후진 양성에 매진했다. 1980년 신군부
계엄령 확대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
화를 위해 앞장선 대표적인 민주시인이
다.

이번 문학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
며,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행사 당일 12
시 5·18기념문화센터(광주 상무지구)에서
출발하는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개별적
으로 참가하면 된다.

문의 062-523-7830.
/박성천기자skypark@kwangju.co.kr



박진현의 문화카데

평소 전시와 공연 관람을 즐기는
기자는 가보고 싶은 외국의 미술관
이나 축제들이 많다. 그래서 책이나
TV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곳을
발견하면 '나만의 위시리스트'
(wish list)에 적어 놓는다. '꿈은 이
루어진다'는 믿음을 안고 몇 년 전
알게 된 세르비아의 '구차 트럼펫
페스티벌'도 그런 곳 중의 하나다.
구차(Gucha)는 세르비아의 수도
베오그라드에서 자동차를 타고
남쪽으로 5시간 가량을 달려야 만
날 수 있는 마을이다. 말이 마을이
지 주민이라고 해야 1000여 명도
채 안 되는 산골이다. 보여줄 것이
라고는 산비탈에 등성등성 들어선

'드라가세보'라는 트럼펫이었다.
1961년 구차 마을의 화합의 장소
로 출발한 트럼펫 축제는 이제 글
로브 페스티벌로 성장했다. 세르비
아인들의 고단한 삶과 함께 해온
트럼펫의 역사는 세계 어디에서도
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.
우리나라도 해마다 약 1100여 개
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린다. 광주·
전남도 예외가 아니다. 김치축제,
사직국제포크음악제, 아리랑 축제,
남도음식 큰잔치, 총장축제 등 수
십 여 개가 된다. 하지만 '그저 그런
동네잔치'들이 많다 보니 가을이면
'축제의 홍수'로 피로감을 호소하
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.

참을 수 없는 축제의 피로감

가옥들이 전부여서 평소엔 사람 구
경하기조차 힘들다.
하지만, 매년 8월(둘렛 주 수요
일~일요일)만 되면 관광객들로 시
끌벅벅해진다. '트럼펫 축제'
(Gucha Trumpet Music Fes-
tival)'때문이다. 54회째를 맞은 올
해는 유럽, 미국, 아시아 등에서 약
8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. 번듯
한 공연장 하나 없지만 누구나 다
길을 걷다 트럼펫을 불면 그 자리
가 곧 콘서트홀이 된다. 축제기간
동안 작은 마을은 일류 트럼페 연
주에서부터 장난감 트럼펫을 입에
문 꼬마들의 연주까지 트럼펫 소리
로 넘쳐난다.

물론 차별화된 콘텐트로 도시의
품격을 높이는 축제도 많다. 지난
31일 막을 내린 '2015 광주 월드뮤
직 페스티벌'(이하 월페)이 그런 경
우다. 올해로 6회째를 맞은 '월페'
는 아시아,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
민속음악을 클래식, 재즈, 록 등 다
양한 장르와 접목해 국내에서 접하
기 힘든 무대를 선사한다. '내년에
도 참가하고 싶다'는 관객들이 80.
2%(2014년 조사)에 달할 정도로 열
성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
다. 다소 생소한 아랍권이나 아프
리카의 노랫말 의미를 알려주는 주
최측의 세심함까지 더해진다면 광
주의 대표 브랜드로 손색이 없을
듯하다.

유럽의 오지인 구차가 관광지로
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유
일의 '트럼펫 도시'이기 때문이다.
남동부 유럽의 발칸반도 중앙에 위
치한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혁명,
제1·2차 세계대전 등 '바람 잘 날
없는' 역사를 거쳤다. 이때마다 세
르비아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준 건

트럼펫 페스티벌과 '월페'의 공
통점은 단일 콘텐트로 내실을 기했
다는 것이다. 색갈 없는 축제는 더
이상 즐거움이 아닌 피로의 대상일
뿐이다. 그리고 보면 축제만큼 선
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도 없다.
<편집부곡장·문화선임기자>



"이 시대의 영웅 운동주를 알자" 유튜브에 홍보 영상

서경덕 교수, 한국어·영어로 제작 ... 배우 문정희 내레이션

항일 시인 운동주(사진·1917~1945년)
를 소개하는 동영상 만들어졌다.
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
수는 안중근, 유관순, 윤봉길에 이어 한국
인이 꼭 알아야 할 4번째 영웅으로 운동주
를 선정하고 그를 알리는 동영상을 한국어
(http://is.gd/iBYRp9)와 영어(http://
is.gd/nY70Ah)로 제작해 1일 유튜브
에 올렸다.
한국어 영상의 내레이션은 배우 문정희
가 맡았고, 영어 영상의 해설은 자막으로
처리했다. 제작은 1~3탄에 이어 이번이
도 메가스터디가 후원했다.

8분 분량의 동영상은 '죽는 날까지 하늘
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외세에
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'로 시작
하는 운동주 시인의 대표작 '서시'(序詩)로
문을 연다.
서 교수는 영어 동영상은 유튜브뿐만 아
니라 미국, 중국, 프랑스, 이집트 등 대륙
별 주요 30개국을 선정해 각 나라에서 가
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 및 동영상 사이트
에 동시에 올려 전 세계 네티즌에게 알릴
예정이다. 메가스터디 측은 "앞으로 '한국
인이 알아야 할 영웅' 시리즈를 10탄까지
만들 계획"이라고 밝혔다. /연합뉴스

광주예술인협회 발행 '소나무' 가을호 나왔다

'빛의 도시에 빛이 없다' 특집

(사)광주예술인협회가 발행하는 '소나
무' 가을호(통권 제12호·사진)가 나왔
다.

이번 호 특집은 '빛의 도시에 빛이 없
다-광주의 빛'이다. 정인서 서구문화원
장의 '빛의 도시에 빛이 없다', 정성구 도
시문화재단CS 대표의 '빛의 실험실 광
주', 김윤현 문학인협동조합 이사장의
'광주 답사 1번지 양림동', 콘텐츠 기획
전문가 김봉국씨의 '빛고를 광주에서 우
리가 만들어 낸 것들과 찾지 못한 것들'
등 글이 실렸다.

'예술인의 삶 이야기'에서는 광주시
북구 시화마을에 문을 연 금봉미술관을
찾아가 금봉 박행보 화백의 작품 세계를
재조명했다. 김정희 광주문인협회 부회
장은 '더 이야기'에서 정동기시대부터
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아온 3000년 역사
가 흐르는 마을 남구 대촌동의 역사를



소개한다.
또 '살아 숨 쉬는 근대미술관' 코너에
서는 남도 모더니즘 회화를 도약시킨 고
(故) 임진숙 화백의 삶과 작품 세계를 살
펴본다. 광주원로예술인회원들의 대표
작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'나의 대표작'
에서는 정송규·양계남·김길성 작가의
이야기를 들었다.
/박용희기자 kimyh@kwangju.co.kr

시인 고은의 문학적 성취 탐구 '고은학회' 창립

시인 고은(82)의 문학적 성취를 이론
적·학문적으로 탐구하는 '고은학회'가 국
내 시인과 평론가를 중심으로 조성됐다.
고은학회 창립 준비위원장인 한원균
한국교통대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지난
31일 "고은은 한국 문단을 넘어 세계문
학의 자리에서 주목받으며 국내외 문학
적 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"며 "고은
의 문학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온 연구
자들이 정치적·저널리즘적 시각에서

벗어나 오로지 문학의 관점에서 미래지
향적인 평가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학
문적으로 수렴하려는 취지로 고은학회
를 창립·운영하기로 했다"고 밝혔다.
준비위원회의 강연호, 박효환, 김수복,
김완하, 안도현 등 시인과 평론가, 국문
학자 총 14명으로 구성됐다.
학회는 창립을 기념해 오는 11일 오
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수원
문화재단에서 세미나를 연다. /연합뉴스

당신의 광장/젊음의 광장! U-square

수비드[sous-vide] 떡갈비,삼겹살 & 돈까스

아이엘리시아

중학생이상	취학어린이(초등학생)	미취학어린이
떡갈비 12,500원	8,500원	5,000원
떡갈비, 떡볶이 14,500원	9,000원	5,500원

수비드 삼겹살, 떡갈비,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(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,000원 할인)

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.

예약문의 062)671-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(광천동) 유·스퀘어,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

모임이 있으신가요?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?

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.

-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
-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
-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
-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
- 맞춤형 출장도시락

건강한 한정식으로
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!

세미나
연회장

상견례
가족모임

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
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.geumsoojang.com 예약문의 (062)525-2111